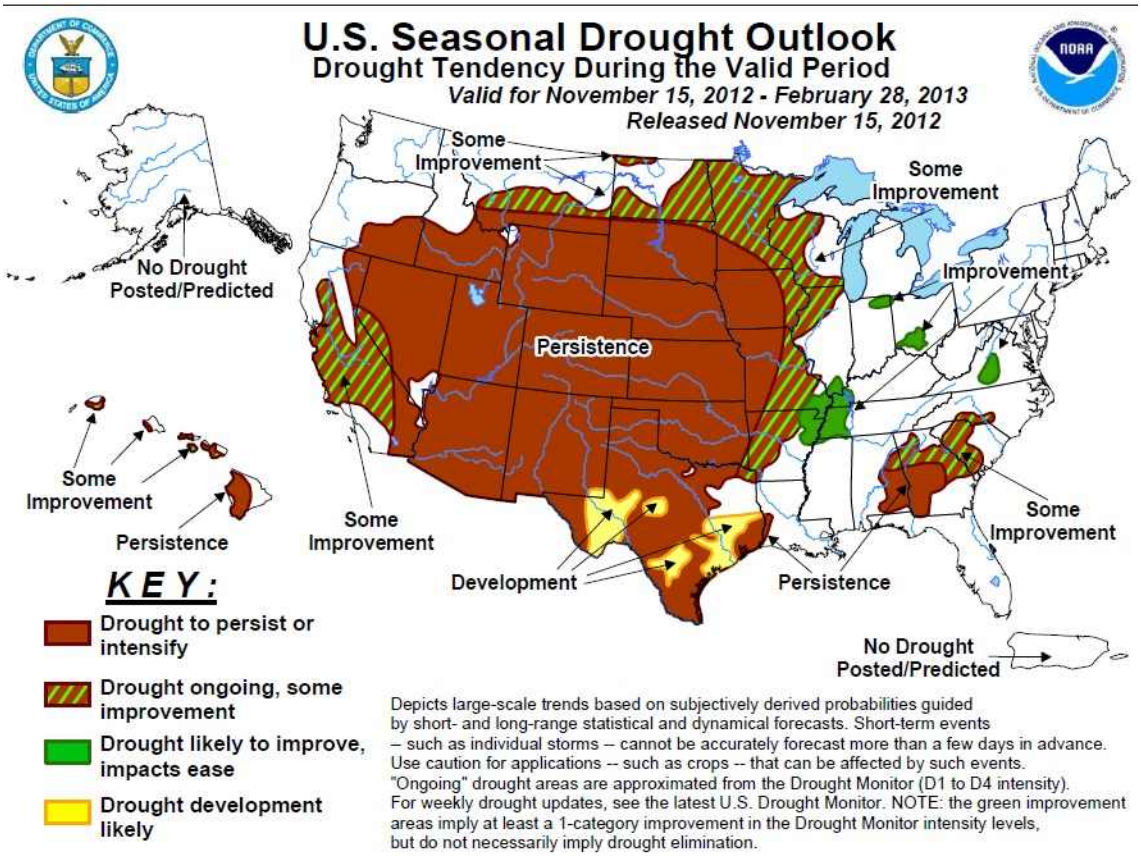
※ 11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

□ 미국 기후 현황(11/11~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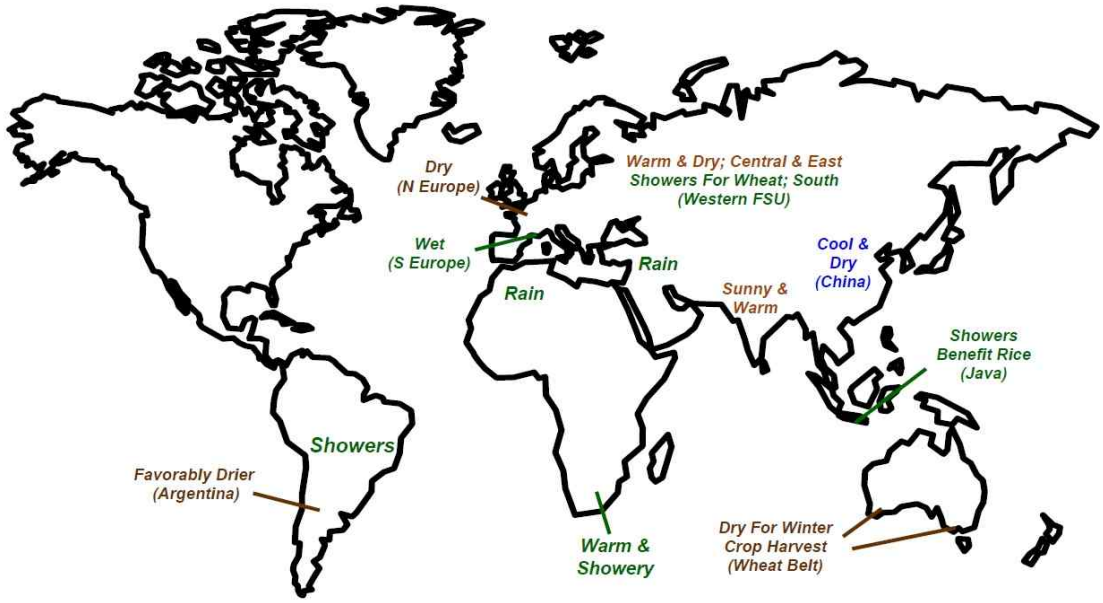
대평원 남동부, 미국 중서부, 멕시코만 서부지역의 주간기온은 평년보다 화씨 5도 이상 낮았다. 미국 동쪽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비가 내렸으며, 중서부지역 강수량은 최소 2인치, 오클라호마 동부에서 위스콘신 중부에 이르는 지역 강수량은 1~2인치였다.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비대신 눈이 내렸다. 동부에 내린 비는 겨울밀 파종 및 여름작물 수확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대평원의 HRW 재배지역, 특히 사우스다코타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지역은 심각하게 건조했다.

□ 미국 작황 하이라이트(11월 12일~18일)

※ 몬태나 북부와 멕시코만 연안을 제외하고 주중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까워 밭작업 진행이 순조로웠다. 주중 미국의 동쪽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러나 오랜 가뭄으로 악화된 겨울밀 작황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 겨울밀: 2013 겨울밀의 84%가 주말까지 발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및 5년 평균 대비 2%p 느린 속도이다. 발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로, 이 지역은 가을 내내 이상건조기후가 지속되어 겨울밀의 발아 및 생육발달이 저해되었다. 전국적으로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4%로 전주대비 2%p 낮고 전년 동기 대비 16%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하이라이트(11/11~11/17)



- 유럽: 남부는 습하나 북부는 건조하다. 지중해 태풍전선이 느리게 이동하며 포르투갈, 스페인 남부에서부터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중간~많은 양의 비(강수량 10-75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렸다. 이에 따라 겨울밀에 대한 저수량, 토양수분, 관개용수가 증가했다. 발칸반도에 가벼운 소나기(강수량 2-10mm)가 내려 겨울밀의 발아가 도움을 받았다. 유럽 남동부는 초여름부터 시작한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수분부족문제를 겪어왔다. 한편 북부 유럽은 기후가 건조해져(강수량 5mm 미만) 밭작업 및 겨울밀 입모가 도움을 받았다. 프랑스 북부 및 영국 남동부는 9월 밀 이후 끊임없이 비가 내려 겨울밀 파종이 지연되었었다.

- 구소련(서부): 중부 및 동부 겨울밀 재배지역 기후가 온난건조하여 입모가 가속화되었다. 북쪽지역 기후가 다시 건조해졌으나 남쪽 밀 재배지역에는 필요했던 소나기(강수량 2-7mm)가 내려 겨울밀의 입모를 도왔다. 그러나 남쪽 밀 재배지역의 서부와 중부는 여전히 건조하여 겨울밀의 균일한 발아 및 입모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러시아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가벼운 소나기(강수량 2-12mm)가 내렸으나 주중 전반적으로 화창하고 기온이 온난(평년보다 1-4°C 높음) 했다. 이 지역의 북쪽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미 겨울밀이 동면기에 진입했다.

- 동아시아: 겨울밀이 동면기에 진입하는 단계이며, 서늘하고 건조하다. 화북평원지대 및 양쯔강 유역 대부분 지역에 주간 총 강수량이 5mm미만이어서 겨울밀 주산지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건조했으나 기온이 하락하고 작물의 생육발달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단기적인 수분부족은 경미한 문제로 보인다. 겨울밀 재배지역의 주간 평균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소폭 낮은 10°C이다.

- 호주: 밀벨트 전반적으로 기후가 건조하여 겨울밀 성숙 및 수확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주말동안 호주 동부에 소나기(강수량 10-50mm)가 내려 습도가 과도해져 밀 성숙이 불리하고 일시적으로 수확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및 퀸즐랜드 남부에 내린 비는 표토층 수분을 증가시켜 최근 파종한 여름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밀벨트의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에 가깝다.

- 아르헨티나: 기후가 건조해져 여름작물 파종작업이 진전을 보았으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파종지연이 계속되었다. 기후가 건조해져 아르헨티나 중부에 과도했던 습도가 감소하여 겨울밀 생육발달 및 여름작물 파종에 도움이 되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수준의 1°C 안팎이며, 라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남부, 산타페, 엔트레리오스의 낮 최고기온은 27~30°C이다. 좀더 북쪽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주 초반에 비(강수량 5-15mm)가 내려 면화 등 여름작물의 발아 및 입모에 필요한 표토층 수분이 유지되었다. 북부의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소폭 낮았으나 주말 낮 평균기온은 섭씨 30도 중반대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11월 15일 기준 옥수수 파종율은 55%(전주대비 5%p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3%p 느린 수준이며, 대두 파종율은 31%(전주대비 13%p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3%p 느린 수준이다.

- 브라질: 중부지역에 광범위하게 비가 내렸고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려 대두와 면화의 파종과 입모에 필요한 수분수준을 증가시켰다. 마토그루소에서부터 동쪽으로 미나스제라이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토칸틴스, 바히아 서부와 같은 브라질 주산지 포함)에서 총 강수량이 50mm(국지적으로 100mm 이상)를 초과했다.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C 높고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초중반이었다. 남쪽에는 건조기후가 지배적이었고, 리우그란데두술에서 마토그루수두술에 이르는 지역에 산발적인 가벼운 비(강수량 25mm 미만)가 내렸다. 기후가 건조해짐에 따라 겨울밀의 과도했던 수분이 감소했고 대두와 옥수수 파종이 촉진되었다. 남쪽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초반이었다.

□ 10월 세계 기후 요약

- 유럽: 10월동안 영국 및 프랑스 북부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여름작물 수확 마무리 작업 및 겨울밀 파종작업이 지연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토양 수분이 증가하여 발칸반도의 가뭄이 해갈되었고, 발칸반도, 스페인, 이탈리아의 겨울밀에 토양수분이 증가했다. 그러나 다뉴브강 하류의 루마니아 중남부와 불가리아 북부에는 여전히 건조한 지역이 남아있다. 10월 중순에 독일과 폴란드에 눈이 내리며 냉해가 발발했으나 월말에는 기후가 온난해졌다.

- 구소련(서부): 이 지역 북쪽 및 서쪽의 기후가 습하여 겨울작물 및 유지작물의 생육발달에 충분한 토양수분이 공급받았다. 반면 우크라이나 남동부 및 러시아 남구에는 건조기후가 지속되어 겨울밀의 발아와 입모가 불량하다. 이 지역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동면기 진입 전 재배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겨울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

- 동아시아: 10월 초 중국 북동부에 한파가 발생하여 성숙한 옥수수와 대두의 건조 및 수

확속도를 가속화했다. 한편 화북평원지대에서 양쯔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기후가 건조하여 여름작물의 수확 및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건조 기후는 겨울밀 발아 및 입모를 위해 관개작업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 호주: 10월동안 호주 서부지역은 대부분 건조하고 간헐적인 고온으로 인해 겨울밀 작황이 불리했다. 호주 남동부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간헐적인 고온으로 인해 성숙기 이전의 겨울밀 및 유지작물 작황이 불리했다.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및 퀸즐랜드 남부 역시 기후가 건조하여 겨울밀 성숙 및 수확속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파종한 여름작물에 대해 관개작업을 할 필요가 증가했다.

- 아르헨티나: 10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후가 습하여 중부 주산지가 과도하게 습도가 높았다. 월간 강수량이 라팜파 북부에서 북동쪽으로 코리엔테스, 미시오네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핵심 주산지인 빠라냐 강 하류지역을 포함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리오스, 산타페 남부)에서 200mm를 초과했다. 빈번하게 비가 내려 여름작물 및 유지작물의 파종이 저해되었고 겨울밀이 과도하게 습했다. 아르헨티나 북부는 습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10월 말 특히 이전에 건조했던 북서부 재배지역(살타, 산티아고 델에스테로, 포르모사와 차코의 서부)에 적시에 소나기가 내려 면화와 다른 여름작물의 수분 수준을 증가시켰다. 중부지역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소폭 높았다(포르모사 인근지역에서 평년대비 3°C 높은 수준).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서늘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지역에는 월 초에 서리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작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 브라질: 10월 동안 중부 대두 주산지에 계절적인 소나기가 계속 내렸다. 그러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계절적이지 않게 온난한 기후(평균기온 평년대비 2-4°C 높음)로 인해 수분증발이 많이 일어났다. 고온(낮최고기온 40°C 육박)건조한 기후로 인해 이른 파종을 한 대두의 일부가 재파종을 해야 했다고 한다. 북동부 내륙지역(토칸틴스, 바히아 서부)에도 월말까지 평년수준의 비가 내리지 않아 유사한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브라질 남부는 기후가 습하여 대두와 옥수수의 발아 및 입모에 필요한 수분이 적시에 공급되었다. 그러나 겨울밀에게는 과도하게 습도가 높았다. 밀 주산지인 리오그란데 두술(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주), 빠라냐 남부의 월간 강수량은 200mm를 초과했다.